

日本 勅版 古活字의 印刷技術 研究

A Study on Early Typography of Imperial Edition in Japan

曹 炯 鎭 (Cho, Hyung-Jin)*

◁ 목 차 ▷

- | | |
|-------------------|-----------------|
| 1. 緒 論 | 5. 勅版 古活字의 印出技術 |
| 2. 勅版의 概要 | 6. 勅版 古活字의 印刷技術 |
| 3. 勅版 古活字의 活字製作技術 | 7. 結 論 |
| 4. 勅版 古活字의 組版技術 | <참고문헌> |

< 초 목 >

(1) 勅版에는 1593년의 文祿칙판 1종, 1597-1603년의 慶長칙판 10종, 1621년의 元和칙판 1종이 있다. 이 중 慶長칙판 8종과 元和칙판 1종이 현존하고 있다.

(2) 活字의 재질은 목재이다. 製作技術은 필서체의 필의를 표현하면서, 문자의 미감을 충분히 살린 세련된 수준이다. 기술 수준은 상하급.

(3) 組版技術은 字跡의 行列이 가지런한 편이며, 뺄어진 문자와 墨色이 다소 연한 엽이 보이지만 정도차가 크지 않다. 기술 수준은 상중급.

(4) 印出技術은 목색의 농담 차이가 크지 않고, 墨汁의 번짐과 잡묵 그리고 이중 인출 등이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균정한 수준이다. 기술 수준은 상중급.

(5) 각 판본의 인쇄기술 수준이 비슷하여 동일한 장인이 동일한 활자로 인쇄한 결과로 추론된다. 印刷技術 수준은 상중급에 해당한다.

要語: 칩판, 고활자, 활자제작기술, 조판기술, 인출기술, 인쇄기술

* 강남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chohj@kangnam.ac.kr)

접수일: 2013년 4월 20일 최초심사일: 2013년 6월 5일 심사완료일: 2013년 6월 26일

<ABSTRACT>

(1) The imperial editions consist of one Bunloku imperial edition in 1593, 10 Keichio imperial editions between 1597 and 1603, and one Genwa imperial edition in 1621. Among them, 8 Keichio imperial editions and 1 Bunloku imperial edition are still in existence.

(2) The material for the type was wood. The type-making technique imitates script writing style and demonstrates quite sophisticated aesthetic touch of the character. Its technical level is upper-lower grade.

(3) The typesetting technique shows evenly aligned vertical and lateral stripes of character trace. There are some skewed characters and lighter tones of ink color in some pages, yet the unevenness is minor. The technical level is upper-middle grade.

(4) The brushing technique is fairly consistent, with very few incidences of uneven ink color thickness, chinese ink spreads, inadvertent marks of ink on the paper, and double printing. The technical level is upper-middle grade.

(5) The type printing in each edition is of a similar quality, implying that the outputs were produced with the same types by the same master members. The typography level is upper-middle grade.

Key words: Imperial edition, early type, type-making technique, typesetting technique, brushing technique, typography

1. 緒 論

고대의 인쇄는 목판인쇄와 활자인쇄로 대별된다. 목판인쇄에 대하여는 인쇄술의 발명국답게 역사적으로 다양한 발달 양상은 물론 오늘날의 연구 수준에 있어서도 단연 중국이 앞선다.¹⁾ 활자인쇄에 대하여는 비록 중국이 발명하긴 하였지만, 다양한 응용과 발달 양상 및 오늘날의 연구에 있어서는 단연 한국이 앞선다.

한자문화권에 속하면서 지리적으로도 밀접한 일본의 고활자 인쇄는 1590년 서양과 1593년 조선으로부터 그 기술이 전래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慶安년간(1648-1651)까지 62년간 京都 지방을 중심으로 서적 간행에 이용되었다.²⁾

일본의 고활자 인쇄는 한국이나 중국의 고활자 인쇄와 비교하면, 유사한 점도 있지만 일본만의 특징도 적지 않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의 연구자에 의하여 연구된 일본의 고활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³⁾ 즉 아직까지 일본의 고활자에 대한 연구 영역은 불모지인 실정이다. 따라서 동양 삼국 고활자 인쇄의 진일보한 비교 연구에 기초 자료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일은 매우 의미 있을 것이다.

-
- 1) 屈萬里, “中文舊籍目錄板本項著錄舉例,” 『大陸雜誌』 第4卷 第6期(1952. 3), 16-18; 昌彼得, “<中文舊籍目錄板本項著錄舉例> 補訂,” 『大陸雜誌』 第4卷 第11期(1952. 6), 5. 한국의 전적발달사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각종 판본이 수없이 생산되어 왔다는 사실에서 중국 목판인쇄의 다양한 발달 양상을 엿볼 수 있다.
 - 2) 1590년 크리스찬관 연활자 도입.
 1591년 크리스찬관 초간본 『サントスの御作業の内拔書』 간행.
 1593년 조선 동활자 도입, 文祿직판 『古文孝經』 간행, 실전.
 1595년 (조선인쇄술 모방) 고활자관 현존 최고본 『天台四教儀集解』 간행(本國寺).
 1612년 크리스찬관 마지막 서적 간행.
 1613년 크리스찬 금교령.
 1614년 크리스찬관 연활자 반출(25년간 체류, 22년간 사용).
 1651년 고활자관 하한(조선인쇄술 59년간 사용).
 - 3) 曹炯鎭, “日本 駿河版 銅活字의 製作過程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第24輯(2002. 12), 89-129; 曹炯鎭, “日本の 駿河版은 朝鮮의 活字인가?,” 『書誌學研究』 第26輯(2003. 12), 1-23; 曹炯鎭, “日本 叡山版 古活字의 印刷技術 研究,” 『書誌學研究』 第53輯(2012. 12), 85-110.

일본의 고활자 인쇄는 크게 爲政者 및 정부기관에 의한 인쇄, 京洛과 地方의 사찰에 의한 인쇄, 서사 및 개인에 의한 인쇄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위정자이면서 정부기관이라 할 수 있는 천황의 명에 의하여 간행된 勅版 고활자본을 대상으로 하였다. 일본의 활자인쇄발달사를 살펴보면, 서양의 활자인쇄술은 조선보다 3년 앞서서 天正 18년(1590)에 수입되어 九州지역에서 유행하였으나, 德川幕府의 禁教令에 의하여 慶長 19년(1614)에 중단되었다. 이에 비하여 文祿 2년(1592)에 수입된 조선의 활자인쇄술은 중앙정부에 의하여 채용되어 일본 활자인쇄 문화의 본질적인 발전을 이끌게 된다.⁴⁾ 그 시작의 주체가 바로 천황이며 칙판이다.

판본의 감정은 문헌 자료나 일본 소장처의 목록에 저록된 것을 따르되, 오류가 분명한 경우는 필자가 수정하였다. 연구방법은 관련 문헌을 통한 문헌연구법과 고활자본 실물을 직접 분석하는 직관법 등을 이용하였다. 주요 연구 내용은 칙판의 개요·활자제작기술·조판(인판의 제작)기술·인출기술, 그리고 이를 종합한 인쇄기술의 수준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인쇄기술 부분을 특히 중점적으로 분석하는 이유는 일본에서도 문화사적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지만, 기술사적 연구는 미미하기 때문이다.

인쇄기술 수준의 분석을 위한 표준은 필자가 이미 발표한 평가 요소를 이용하였다.⁵⁾ 인쇄기술을 서술함에 있어서는, 판본을 각각 분석한 것을 모아서 칙판 전체를 집단으로 기술하기 때문에, 평가 표준에 나타난 평가 요소의 정도와 수량을 판본별로 일일이 수치로 표시하지 못하고, 전체적인 정황을 기술하였다.

활자본의 기술 수준을 평가할 경우, 연구자에 따라 관점과 안목의 차이에 의하여 그 평가 결과는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한 연구자가 유사한 기술 수준의 여러 활자본을 분석할 경우, 분석할 때의 감정이나 심리적 상태에 따라서

4) 慶長2年(1597)勅版木活字本, 『錦繡段』의 발문: ‘此規模頃出朝鮮, 傳達天聽, 乃依彼樣使工摹寫焉.’; 慶長2年勅版木活字本, 『勸學文』의 발문: ‘命工, 每一梓鏤一字, 基布之一版, 印之. 此法出朝鮮, 甚無不便, 因茲摸寫此書. 慶長二年八月下泮.’; 川瀬一馬, 『増補古活字版之研究』(東京: 共立社, 1967), 151.

5) 曹炯鎭, “古活字 印刷技術의 評價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第25輯(2003. 6), 369-406.

분석 결과와 내용이 달리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더 나아가서 동일한 연구자가 동일한 판본을 시차를 두어 여러 번 분석할지라도, 그 평가 결과가 일치하기란 쉽지 않다. 그 결과 평가 대상이 되는 활자본의 기술 수준은 변함이 없는데, 연구자의 안목 또는 분석 시기와 감정 상태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평가하여 내용이 다른 결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같은 불합리한 오차를 극복하기 위하여 활자본을 분석하기 위한 기술적인 요소를 추출하고, 이 기술적인 요소를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 방법으로 수치화된 표준을 제시한 바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이 평가표준을 적용하여 봄으로써 타당성 여부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2. 勅版의 概要⁶⁾

2.1 勅版의 種類

칙판이란 황제의 명에 의하여 간행한 판본을 지칭한다. 일본에 천황의 명에 의하여 고활자로 간행한 칙판은 3종류가 있다.

2.1.1 文祿勅版

豊臣秀吉는 임진왜란 중인 文祿 2년(1593)에 조선에서 가져간 銅活字 · 인쇄 용구 · 서적 등을 後陽成天皇에게 헌상하였다. 後陽成天皇는 같은 해에 당시의 수도인 京都에서 六條有廣 · 西洞院時慶 · 日野輝資 등 12인에 명하여 윤 9월

6) 川瀬一馬, 『増補古活字版之研究』, 151-197, 689-693 ; (日本)國立國會圖書館圖書部編, 『國立國會圖書館所藏古活字版圖錄』(東京: 汲古書院, 1990), 403-404. 문화사적인 내용은 이들 자료를 주로 참고하였다. 주의할 점은 川瀬一馬가 『古活字版之研究』를 집필하기 위하여 古活字版을 조사할 때, 연구 노트를 작성하지 않고 기억에 의한 결과 곳곳에서 발견되는 오류다.

21일 개관에 착수하여 조선에서 가져간 銅活字 · 인쇄용구, 그리고 조선의 방법으로 『古文孝經』을 간행하였다.⁷⁾ 이의 간행 전말은 『時慶卿記』 文祿2年條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六條有廣과 西洞院時慶가 조판에 종사하였으며, 11월 16일 간행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간행 부수는 알 수 없는데, 현재 전하지 않는 점에서 극소량이었을 것으로 추측될 뿐이다. 이를 “文祿勅版”이라고 칭한다.

文祿勅版 동활자, 즉 조선에서 가져간 동활자는 慶長 10년(1605) 德川家康가 駿河版 동활자의 주조용 표본으로 삼기 위하여 빌려갔다가 반환한 사실⁸⁾로 미루어 이때까지는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후의 행방은 알 수 없다.

文祿勅版 동활자와 그 인본인 『古文孝經』이 현존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는 조선의 어느 동활자이며, 『古文孝經』의 판식은 어떠한가? 추가로 간행한 서적은 없는가? 등을 전혀 알 수 없음이 안타까울 뿐이다.

2.1.2 慶長勅版

後陽成天皇가 慶長 2년(1597)부터 慶長 8년(1603) 사이의 7년간에 대형 목활자로 10종의 서적을 간행하였다. 이를 “慶長勅版”이라고 칭한다. 모두 비슷한 판식으로 칙판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판면이 크고 우수한 양식을 갖추고 있다.

(1) 『錦繡段』, 1권 1책, 慶長 2年 木活字本. 본문 제64葉下⁹⁾ 발문의 끝에 2행으로 “慶長第二歲在丁酉夷則下澣, 臣僧南禪靈三誌焉.”의 간기가 있다. 실제 인

7) 西洞院時慶, 『時慶卿記』, 文祿2年條; 川瀬一馬, 『日本書誌學用語事典』(東京: 雄松堂, 1985), 248.

8) 舟橋秀賢, 『慶長日件錄』, 慶長10年7月28日條.

9) 엽의 하면. 포배장과 선장본의 경우, 한 장의 인판에서 인출된 서엽을 접어서 장정하므로 오늘날 2쪽으로 보이지만 장차는 하나뿐이다. 따라서 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그 방법이 국가마다 개인마다 다르다. 대체로 좌우 · 상하 · 전후 · AB · 오후 등을 사용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통일된 방법이 없다. 필자는 서엽의 좌우가 인판과는 반대이기 때문에 혼돈을 피하고자 내용의 앞뒤로 구분하는 “上下”를 사용한다.

쇄 작업을 수행한 사람은 알 수 없으나, 당시 文祿직관을 간행한 西洞院時慶 등이 참여하였을 것으로 추측할 뿐이다. 간행이 완성되자, 8월 20일 신하에 하사하였다. 이에 관한 기록은 다음이 있다.

小槻孝亮의 「宿禰記」, 慶長2年8月20日條에

廿日晴, 錦繡段新ホリノ板, 自 禁中被下諸家, 家君一册拜領.

三寶院의 「義演准后日記」, 慶長2年8月條에

(昭實)

廿日, 從禁裏今度新敷被開版トテ, 錦繡段一册拜領, 自長橋局二條殿へ參候了, 仍今夕到來了.

(豊晴)

廿一日, 爲雙紙以禮, 勸修寺大納言殿へ, 以愚札申候, 使者宮内卿法眼, 從禁裏樣, 昨日新版之錦繡段一帖,

令拜領候, 誠以叡慮忝次第, 過分存候, 每事宜預御披露候, 謹言.

八月廿一日

義演

勸修寺大納言殿

(2) 「勸學文」, 1권 1책, 慶長 2年 木活字本. 권말 제5葉上, 3·4·6行에 “命工每一梓鏤一字基布之一版印之, 此法出朝鮮甚無不便因茲摸寫此書, 慶長二年八月下澣.”의 발문이 있다. 실제 인쇄 작업을 수행한 사람은 알 수 없다.

(3) 「日本書紀(神代卷)」, 2권 2책, 慶長 4(1599)年 木活字本. 저본은 吉田家が 작성하고, 판하본은 猪熊信男家が 썼다. 간행 사실에 관하여는 船橋國賢의 「日本書紀」跋文에 자세하다.¹⁰⁾ 간행되자 兩宮에 먼저 봉헌한 후 신하들에게 하사하였다.¹¹⁾ 속표지에 3행으로 “日本書紀, 慶長己亥, 季春新刊”의 대형 刊記가 있다. 이 대형 간기는 비록 사주쌍변의 조립식 광곽이 있지만 본문에 사용할 수

10) 船橋國賢, “(日本書紀)跋文,” 慶長4年勅版木活字本, 「日本書紀」, 권2 제44엽.

11) 「御湯殿上日記」, 慶長 4年 閏 3月條 ; 「壬生家四卷之日記」, 慶長 4年條.

없는 대형 문자라는 점과 균정한 먹색으로 미루어 목판으로 보인다. 권2 제44엽(末)下 제8(末)행에도 간기가 있다.

(4) 『古文孝經』, 1권 1책, 慶長 4年 木活字本. 속표지에 사주쌍변의 조립식 광곽 내에 2행으로 “孝經慶長, 己亥刊行”의 대형 간기가 있다.

(5) 『四書』(『大學』1책·『中庸』1책·『論語』10권 5책·『孟子』14권 2책), 慶長4年 木活字本이 있다.

(6) 『職原抄』, 2권 2책, 慶長 4年 木活字本. 제1책 속표지에 사주쌍변의 조립식 광곽 내에 2행으로 “職原鈔慶長, 己亥季夏刊”의 대형 刊記가 있다. “季夏”는 小篆體. 후자는 『宿禰記』의 慶長 5(1600)年 7月 10日條에 있는 “十日辛亥 從禁裏職原抄新板官務拜領也”라는 기록으로 미루어 慶長 4-5년에 걸쳐서 완성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¹²⁾

(7) 『長恨歌·琵琶行』, 1책, 慶長 8年 木活字本. 舟橋秀賢의 『慶長日件錄』, 八年正月十七日條: 長恨歌一字板於御前, 驚尾, 中院入道予等撰並畢의 기록에서 간행 사실을 알 수 있다.

(8) 『五妃曲』, 1책, 慶長 8年 木活字本. 100부 간행, 舟橋秀賢의 『慶長日件錄』, 八年正月十一日條: 白氏文集之中上陽人·陵園妾·李夫人·王昭君詩四五首長恨歌傳等五妃曲ト名て被撰拔, 以一字板百部被新摺, 細工之衆ニ予申渡者也.와 九年五月十四日條: 五妃曲令點遣之의 기록과 『言繼卿記』, 慶長八年四月一日條: 禁中ヨリ白氏五妃曲一冊被拜領了忝者也去春新刻ニ被仰付了와 『時慶卿記』, 慶長八年四月一日條: 禁裏ヨリ白氏文集內上陽人長恨歌傳等ノ板拜領也一御福ヨリ文到着의 기록에서도 간행 사실을 알 수 있다.

(9) 『陰虛本病』, 1冊, 慶長年間(1596-1614) 木活字本. 보각한 활자가 사용되었다. 광곽이 매우 잘 정비되어 목판으로 착각할 정도이다.¹³⁾

(10) 『中臣稔』, 1帖, 慶長年間 木活字本. 猪熊信男 소장본인 慶安年間に 번각된 『中臣稔』의 刊語:

12) 川瀬一馬, 『増補古活字版の研究』, 185.

13) 川瀬一馬, 『増補古活字版の研究』, 187.

這解除者忝 慶長御字官版
而所令祖父拜領也抑元々神
語所集延喜式等五十余本之
隨一最上善言美詞是也衆人
願望頓々而令成就仍禰中臣
稔^{臣稔也}故爲令授与於諸家重
而鉅梓者也寔吾道之樞要慎
而其怠矣
慶安^{亥數壽星}歲季夏^{原維鳥尾}日卜部朝臣

즉 조부가 하사받았다는 “慶長御字官版”은 의심없이 慶長칙판을 말하므로, 이에 의하여 『中臣稔』을 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번각본이기는 하지만 판면의 높이도 4촌 2푼, 매행 9자, 문자의 형태도 매우 커서 저본인 慶長칙판의 판식을 방불케 하고 있다.¹⁴⁾

(11) 『禮記』는 간행을 기획하였거나, 아니면 『四書』를 간행할 때 『禮記』의 일부분을 첨가하려 했던 듯하다. 土御門泰重 자필본인 『日時勘文留』¹⁵⁾의 寛永 11・12年條의 기록에서 慶長칙판 판식의 罫紙를 사용한 『論語』 1엽, 『中庸』 2엽, 『禮記』 2엽 총 5엽을 발견할 수 있는 점에서 이를 짐작할 수 있다.¹⁶⁾

2.1.3 元和勅版

元和 7년(1621)에 木活字로 『新雕皇朝類苑』¹⁷⁾을 간행하였다. 권말 跋文 제4葉上의 제5행에 “元和七年重光作噩六月晦日”의 간기가 있다. 이를 “元和勅版”이라 칭한다. 後水尾天皇은 부친인 後陽成天皇으로부터 慶長 16년(1611)에 황

14) 川瀬一馬, 『増補古活字版の研究』, 188-189.

15) 속표지에는 “日次日記”라고 쓰여져 있다.

16) 川瀬一馬, 『増補古活字版の研究』, 187-188.

17) 東洋文庫와 森上修(“近世初頭の古活字版印刷,” 『杏雨』 제4호(2001. 4), 95)는 서명을 『皇宋事實類苑』이라 하고 있는데, 序題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목록과 권두제는 “新雕皇朝類苑”으로 되어 있다.

위를 물려받고 학술장려 정책 등을 계승하였다. 그리하여 元和 7년에 『新雕皇朝類苑』 78권, 목록 1권 16책의 거질을 간행하였다.

元和칙판 『新雕皇朝類苑』에 관한 문헌기록은 『土御門泰重記』(元和7年條) · 『資勝卿記』(元和 7年條) · 『時慶卿記』(元和 7年條) · 『元和年錄』 · 『壺簪錄』 · 『羅山文集』 · 『道春年譜』 · 『新雕皇宋類苑』 卷末 跋文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문헌에도 “銅”활자라는 언급은 없고, “활자”라고만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川瀬一馬는 近藤正齋가 지적한 『橘窓自語』의 기록:

官庫に銅版の活字板あり 〆如此のかたちな。寶永の火事までは俵に入て御春屋とて米藏あり。そこにをさめて有しが、寶永にやけたりしかど、銅板なれば、焼損ぜざれば、とり集めて長櫃にをさめて文庫に入られたり。我おぼえて取いたされて、大學論語などをすらされしとあり。伏原宣光卿物せられしに、はたらいて字をうゑしこと有しなり(云々).

이를 인용하면서 江戸시대에 (元和칙판)동활자가 관고에 소장되어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다.¹⁸⁾ 그러나 이는 元和칙판이 목활자본이 아닌 동활자본이라는 점과 함께 착각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 기록이 동활자임이 확실하다면, 이는 文祿칙판이거나 駿河版일 것이다.

이 활자를 이용하여 『新雕皇朝類苑』 외에 어느 서적을 간행하였는가는 알 수 없다. 川瀬一馬는 『補注蒙求』(雙邊無界, 13行20字) · 『古注千字文』(雙邊無界, 13行20字) · 『開元天寶遺事』 · 『古今事文類聚(부분)』 등의 활자 양식이 비슷한 점에서 같은 활자를 元和年間(1615-1923)에 사용하여 간행하였을 수도 있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으나,¹⁹⁾ 실물 분석 결과 동활자본도 아니고 元和칙판도 아님을 확인하였다.²⁰⁾ 특히 『補注蒙求』의 경우 서체가 편체에 속하여 장체인 『新雕皇朝

18) 川瀬一馬, 『増補古活字版の研究』, 196.

19) 川瀬一馬, 『増補古活字版の研究』, 196.

20) 실물을 확인한 판본은 『標題徐壯元補注蒙求』의 (日本)國立國會圖書館本(WA7-90) · 東洋文庫本(三Ah11) · 內閣文庫本(364-98) · 弘文莊善本目錄수록本(反町茂雄編, 東京: 弘文莊, 1977), 294, 『千字文』의 (日本)國立國會圖書館本(WA7-4, 『千字文附蒙求』 胡

類苑』과 차이가 있다.

2.2 勅版의 刊行 手段

예외 없이 모두 목활자를 이용하였다. 혹자는 『新雕皇朝類苑』을 동활자본이라고 하고 있으나,²¹⁾ 실물 판독 결과 목활자본임을 확인하였다.

2.3 勅版의 數量과 版式

2.3.1 勅版의 數量

오늘날 각 기관의 소장목록과 연구문헌의 검색을 통하여 파악한 결과, 현재까지 알려진 칩판의 서적은 다음의 목록과 같다.

이를 보면 총 12종인데, 3종은 현존하지 않으며, 이외의 1종은 간행의 가능성을 짐작할 뿐이다. 이들의 크기는 1권 1책에서 78권 16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지만, 대체로 소형의 저술이 많다.

이중 본 연구를 위하여 8종 12판본을 실사하였으며, 마이크로필름을 참고한 것은 1종이다.

曾詠史詩』인데 『千字文』이 결실되어 『蒙求附胡曾詠史詩』로 저록)·大東急紀念文庫本(22-39-54), 『開元天寶遺事』의 東洋文庫本(三Ah1) 등이다.

21) 川瀬一馬, 『増補古活字版の研究』, 192; 東洋文庫日本研究委員會編, 『岩崎文庫貴重書書誌解題』(東京: 東洋文庫, 2000), 162. “銅活字本”이라고 저록하면서, 목활본이 아닌가의 의심을 표하고 있다; 東京大學東洋文化研究所編, 『東京大學東洋文化研究所漢籍分類目錄』(東京: 東京大學東洋文化研究所, 1973), 592下. “元和年間銅活字本”; 中華民國國立中央圖書館編, 『中華民國國立中央圖書館善本書目(增訂本)』(臺北: 中華民國國立中央圖書館, 1967), 600. 新雕皇朝類苑, 7559, “日本元和7年銅活字本”.

<勅版 古活字本 目錄>

		書名	卷-冊數	版本事項 ²²⁾	비고	
1.		文祿孝經		文祿2(1593)年文祿勅版(朝鮮銅活字)印本	失傳	
2.	1	古文孝經	1-1	慶長4(1599)年慶長勅版木活字印本	(1)WA7-7 (2)三Aa6 (4)509-66	(8)091-卜116-1 (11)122.9-115
	2	勸學文	1-1	慶長2(1597)年慶長勅版木活字印本	(2)三Ae8 (11)370-15	
	3	錦繡段	1-1	慶長2(1597)年慶長勅版木活字印本	(2)三Ae2 (5)22-43-62	(11)921.2-129 (12)恭仁41
	4	(四書)論語 [集解]	10-5	慶長4(1599)年慶長勅版木活字印本	(13)p.13-15	
		(四書)孟子	14-2	慶長4(1599)年慶長勅版木活字印本	(2)三Aa19 (13)p.17	
	5	五妃曲	1책	慶長8(1603)年慶長勅版木活字印本	失傳	
	6	陰虛本病	1冊	慶長年間慶長勅版木活字本	小汀利得 소장	
	7	日本書紀 (神代卷)	2-2	慶長4(1599)年慶長勅版木活字印本	(2)三Ag5 (4)557-35 (6)貴5-5/二5 (6)마이크로 필름P854 ²³⁾	(11)210.1-11 (11)210.1-1285 (13)p.9
					(11)921.2-165	
	8	長恨歌· 琵琶行	1冊	慶長8(1603)年慶長勅版木活字印本	(11)921.2-165	
	9	中臣菰	1帖	慶長年間慶長勅版木活字本	失傳, 번각본만 현존	
	10	職原抄	2-2	慶長4(1599)年慶長勅版木活字印本	(4)特-95 (5)33-11-143	(11)328.1-11
	11	禮記		慶長年間慶長勅版木活字本	간행의 가능성 있음.	
3.		新雕皇朝 類苑	78, 目1-16	元和7(1621)年元和勅版木活字印本	(1)WA7-15 (1)WA7-39 (2)三Al2 (2)三Al3 (3)308-31 (4)405-142	(5)22-42-60 (7)110X-40 (9)? (10)p.592下 (11)古168-1 (14)7559

비고: 판본의 소장처와 청구기호, 실사 판본에는 밑줄.

(1) = (日本)國立國會圖書館, (2) = 東洋文庫, (3) = 內閣文庫, (4) = 書陵部, (5) = 大東急紀念文庫, (6) =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7) = 慶應義塾大學圖書館, (8) = 慶應義塾大學圖書館附屬研究所斯道文庫, (9) = 近畿大學中央圖書館, (10) = 東京大學東洋文化研究所, (11) = 天理大學附屬圖書館, (12) = 杏雨書屋, (13) = 弘文莊古活字版目錄²⁴⁾, (14) = 中華民國國家圖書館.

2.3.2 勅版의 版式상 特徵

2.3.2.1 慶長勅版²⁵⁾

1) 『古文孝經』, 1권 1책, (일)국회본과 동양문고본 모두 표지목서: 孝經. 左右雙邊, 有界, 半葉8行17字, 大黑口, 上下內向・中上向3黑魚尾, 일체식 판심, 판심제는 小字, 版心: 孝經(張次), 25.0×16.1cm, 序 4葉, 본문 9葉, 총 13葉.

2) 『勸學文』, 1권 1책, 표지목서: 勸學文. 左右雙邊, 有界, 半葉8行17字, 小字單行, 大黑口, 上下內向・中上向3黑魚尾, 일체식 판심, 판심제는 小字, 版心: 勸學文(張次), 25.0×16.2cm, 총 5葉.

3) 『錦繡段』, 1권 1책, 표지명주제첨목서: 錦繡段. 左右雙邊, 有界, 半葉8行16字, 小字單行, 大黑口, 上下內向・中上向3黑魚尾, 일체식 판심, 판심제는 小字, 版心: 錦繡段(張次), 25.0×16.12cm, 총 64葉.

4) (『四書』)『孟子』, 14권 2책, 표지제첨목서: 孟子 勅活字刊本 乾(坤). 左右雙邊, 有界, 半葉8行17字, 大黑口, 上下內向・中上向3黑魚尾, 일체식 판심, 판심제는 小字, 版心: 孟子(張次), 25.09×16.5cm, 상책: 序 5엽, 본문 권1~7은 68엽, 하책: 권8~14는 67엽, 총 140葉.

5) 『日本書紀(神代卷)』, 2권1책, 표지 서명 없음. 四周單邊, 無界, 半葉8行17字, 小字雙行, 大黑口, 上下內向・中上向3黑魚尾, 일체식 판심, 판심제는 小字 (본문 소자보다 약간 더 작다.), 版心: 日本紀(張次), 24.98×16.4cm, 卷1은 47葉,

22) 일본의 판본사항 기록 방식은 활자본일지라도 ‘모년모주체刊’으로 표현하고 있다. 즉 ‘모년모주체刊行’의 의미이다. 본 연구에서는 판본의 생산 수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활자본의 경우는 ‘모년모주체모활자(모년鑄 또는 모년刻)印本’으로 기록한다. 왜냐하면 刊本 또는 刻本은 목판본을 의미하며, 활자본은 활자의 제작 시기와 인출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23) 저본은 貴5-5/二5이다.

24) 이는 판매목록이므로 해당 판본의 현재 소재지는 바뀌었을 수 있다.

25) 실사하지는 못하였지만, 문헌(川瀨一馬, 『增補古活字版の研究』, 187)을 통하여 판식을 알 수 있는 판본이 있다. 『陰虛本病』, 1冊, 四周單邊, 無界, 半葉8行17字, 版心: 日本紀(張次), 8촌9푼5리*5촌3푼, 總 3葉. 약간 두꺼운 저지, 책 크기는 9촌5푼5리*6촌5푼5리.

卷2는 43葉, 跋文 1葉, 총 91葉.

6) 『長恨歌·琵琶行』, 1권 1책, 표지묵서: 長恨歌 琵琶行. 四周雙邊, 有界, 半葉8行17字, 白口, 上下內向·中上向3黑魚尾, 일체식 판심, 판심제는 小字, 版心: 長恨歌(張次), 24.6×16.2cm, 長恨歌傳 9엽, 琵琶行 4엽, 총 13엽.

7) 『職原抄』, 2권 2책, 표지 서명 없음. 四周單邊. 無界, 半葉8行17字, 小字雙行, 大黑口, 上下內向·中上向3黑魚尾, 일체식 판심, 판심제는 小字, 版心: 職原抄(張次), 25.2×16.27cm, 상책: 45엽, 하책 52엽 총 97葉.

2.3.2.2 元和勅版

『新雕皇朝類苑』, 78권, 목록 1권, 16책, (일)국회본은 표지제침묵서: 皇朝類苑; 동양문고(15책)·내각문고·중화민국국가도서관본(15책)은 표지묵서: 皇朝類苑. 제1책에는 皇宋事實類苑序, 皇宋事實類苑後序, 皇朝類苑總目, 麻沙新雕皇朝類苑卷第目錄이 수록되어 있고, 제15책에는 新雕皇朝類苑 권제73~78의 본문과 발문이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제1책의 序·後序·總目·제15책의 跋文은 활자와 판식이 目錄·本文과 다르다.

1) 序·後序·總目·跋文의 판식은 四周雙邊, 有界, 半葉행서체大字8行12字, 제1엽 제2행은 연각활자, 大黑口, 上下內向1葉花紋魚尾, 일체식 판심, 판심제는 小字(본문 중자와 소자의 중간 크기), 版心: 皇朝類苑序(張次), 22.58×16.61cm, 皇宋事實類苑序 3葉, 皇宋事實類苑後序 2葉, 皇朝類苑總目 2葉, 발문 4葉, 총 11葉.

2) 본문의 판식은 四周雙邊, 無界, 半葉中字13行20字, 小字單行或雙行, 大黑口, 上下內向雙黑魚尾, 일체식 판심, 판심제는 小字(본문 중자와 소자의 중간 크기), 版心: 皇朝卷(次)(張次), 22.13×16.56cm, 제1책 麻沙新雕皇朝類苑卷第目錄 42葉, 제2책 新雕皇朝類苑 卷第一 13葉, 卷次順으로 13葉, 9葉, 11葉, 10葉, 11葉, 제3책 10葉, 13葉, 11葉, 11葉, 11葉, 8葉, 제4책 12葉, 13葉, 13葉, 10葉, 10葉, 제5책 11葉, 11葉, 11葉, 11葉, 13葉, 제6책 12葉, 12葉, 12葉, 12葉, 12葉,

제7책 11葉, 12葉, 10葉, 10葉, 10葉, 10葉, 제8책 12葉, 14葉, 12葉, 12葉, 12葉,
제9책 12葉, 15葉, 11葉, 12葉, 12葉, 제10책 13葉, 12葉, 12葉, 8葉, 11葉, 10葉,
제11책 9葉, 9葉, 12葉, 11葉, 11葉, 13葉, 제12책 13葉, 10葉, 12葉, 13葉, 13葉,
제13책 13葉, 11葉, 10葉, 11葉, 11葉, 10葉, 제14책 11葉, 13葉, 13葉, 10葉, 10葉,
10葉, 제15책 10葉, 10葉, 10葉, 10葉, 11葉, 8葉, 총 919葉.

이상의 실사자 8종 12판본을 근거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表紙 題簽 書名

제침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3종, 제침 없이 묵서한 경우가 7종, 표지 서명이 없는 경우가 2종이다.

2) 匡廓 형식

사주쌍변이 2종, 사주단변이 2종, 좌우쌍변이 4종이 있다. 광곽은 慶長년간 초기의 좌우쌍변에서 元和년간으로 갈수록 사주단변 또는 사주쌍변으로 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3) 界線 유무

계선이 있는 경우가 5종, 없는 경우가 3종을 차지하고 있다. 초기의 有界에서 점차 無界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4) 行數

慶長칙판본 7종과 元和칙판본의 서문은 모두 반 엽에 8행을 취하고 있으며, 元和칙판본의 본문은 13행을 취하고 있다.

5) 字數

慶長칙판본의 첫판본인 『錦繡段』만 16자를 택하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17자

이다. 元和칙판본은 서문은 12자, 본문은 20자를 취하고 있다.

6) 小註 형식

慶長칙판본의 첫 2판본은 小字單行이고, 그 후 小字雙行도 2개의 판본이 있다. 소자가 없는 경우는 3종이다. 元和칙판본은 서문에는 소자가 없지만, 본문에는 小字單行 또는 雙行 형식을 취하고 있다.

7) 版口 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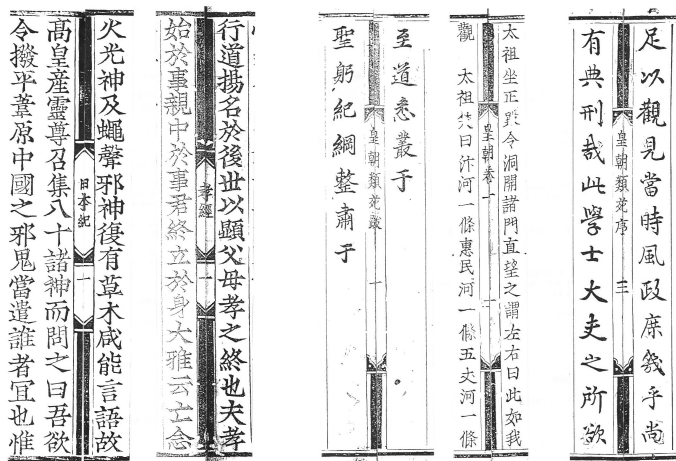
대흑구가 7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長恨歌・琵琶行』만 백구를 취하고 있다.

8) 魚尾 형식

慶長칙판본은 모두 上下內向・中上向3黑魚尾 형식을 취하고 있다. 元和칙판본의 서문은 上下內向1葉花紋魚尾를, 본문은 上下內向雙黑魚尾 형식을 취하고 있다.

9) 기타 특징: 版心

실사자 8종 모두가 판심을 이루는 판구・어미・양측의 계선이 일체식으로 된 판심을 사용하고 있다. 慶長칙판의 경우 판심제와 장차 사이에 어미를 하나 더 배치하여 3어미를 취하고 있다. 판심제는 慶長칙판의 경우 2~3자의 약서명 또는 정서명을 사용하였다. 元和칙판은 서문과 발문에서 4자(皇朝類苑)의 약서명(“서”・“발”)을 포함하여 5자)을, 본문에서는 2자(皇朝)의 약서명을 사용하였다. 활자의 크기는 慶長칙판의 경우 소자를 사용하되 본문 소자보다 약간 더 작은 경우가 있다(『日本書紀』). 元和칙판은 본문에서 중자와 소자의 중간 크기의 활자를 사용하였다. 이같은 칩판의 판심은 실물을 관찰하면 한눈에 구분이 될 만큼 특징이 명확하였다.



<사진 1> 慶長척판과 元和척판의 판심(「日本書紀」·「古文孝經」·「新雕皇朝類苑」)

3. 勅版 古活字的 活字製作技術

척판의 인쇄기술에 대하여 활자 인쇄의 3요소인 활자의 제작, 조판 = 인판의 제작, 인쇄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기술 수준을 분석한 후, 이를 종합하여 전반적인 인쇄기술을 평가하였다.

3.1 材質과 製作 方法

3.1.1 字樣과 字跡의 일치 여부

慶長척판은 자양이 일치하지 않으나 매우 유사하며 강건한 서체로 古勁한 세련미를 갖추고 있다(「古文孝經」·「勸學文」·「錦繡段」·「孟子」·「日本書紀」). 굳이 구별하자면 그중에 세련미가 약간 떨어진 경우가 있다(「長恨歌」·「琵琶行」·「職原抄」).

元和직판은 행서체와 해서체 문자에서 모두 자양이 일치하지 않으며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역시 세련미를 갖추고 있다.



<사진 2> 慶長직판과 元和직판의 자적²⁶⁾

3.1.2 刀刻의 痕迹

도각의 흔적은 모든 판본에서 필획의 시작·마무리·돌아가는 곳·빼침 등의 윤곽에서는 역력하고, 필획이 교차하는 곳에서는 드물게 보인다. 「古文孝經」은 序 第2葉上, 2-4“十”・3-13“中”의 필획이 교차하는 곳에서 볼 수 있다. 「長恨歌・琵琶行」의 경우 필획이 교차하는 곳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新雕皇朝類苑」은 序 第1葉上, 3-5“載”・4-6“軼”・5-3“可”・6-3“失”・8-6“來”에서 도각 흔적이 쉽게 보인다. 序 第1葉下, 1-4“亂”・2-3“使”・2-5“着”・3-11“年”・5-5“冊”・5-10“者”, 第2葉下, 5-8“去”5-12“雅”7-5“字”, 第3葉上, 1-2“宋”2-3“神”2-5“朝”3-10“釋”, 後序 第4葉上, 2-1“君”3-7“搜”6-2“耳” 등은 필획 교차에서 도각 흔적이 쉽게 보인다.

26) 문자의 표본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각 문자의 배열의 차에 의하여 크기는 다소 달라질 수 있다. 이하 같다.



<사진 3> 慶長척판과 元和척판의 도각 흔적

3.1.3 木理의 有無

목리는 모든 판본에서 목즙이 과다하게 도포된 문자가 아니면 확대경으로 관찰해야 할 만큼 섬세하지만 시중 볼 수 있다. 필획이 굵어서 크고 작은 목리를 쉽게 발견할 수 있거나(『孟子』・『日本書紀』), 목리가 일부 문자에서 비교적 역력히 보이는 것도 있다(『職原抄』・『新雕皇朝類苑』).



<사진 4> 慶長척판과 元和척판의 목리

필획 윤곽이 분명하여 도각 흔적이 역력하고 섬세한 목리가 미세하게 보이는 점에서 활자를 조성한 후 바로 인출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古文孝經』·『勸學文』·『錦繡段』).

목리의 방향은 대부분이 가로로 나타나지만, 간혹 세로 방향으로도 보인다(『錦繡段』·『孟子』·『長恨歌·琵琶行』). 이는 일부나마 목재를 독립된 육면체로 재단한 후 필획을 조각하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목색이 금속 채질처럼 미세한 점으로 이루어진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목질이 단단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古文孝經』·『勸學文』·『錦繡段』·『新雕皇朝類苑』).

古文然門
『古文孝經』序 第3葉上, 3-2·3-3·3-14·6-17
可太述猶
『新雕皇朝類苑』序 第1葉上, 5-3·5-7·後序 第4葉上, 2-4·7-11

<사진 5> 慶長척판과 元和척판의 목색

척판의 여러 판본을 관찰하면 대량인출이나 오랜 사용으로 필획이 굵어지면서 윤곽과 서체가 퇴화되거나 목리가 역력해진 문자가 거의 없다. 이는 척판 활자가 대량 인출이나 장기간 사용되지 않았음을 짐작하게 한다.

慶長척판과 元和척판 활자의 높이는 알 수 없지만 자면의 크기만 비교하면, 慶長척판의 소자와 元和척판의 중자가 병용할 수 있을 정도로 크기가 비슷하다. 그러나 자세히 관찰하면 慶長척판 소자가 元和척판 중자보다 약간 작다. 서체는 慶長척판은 長體임에 비하여 元和척판은 扁體에 해당한다. 동일한 문자에 나타난 서체의 필법도 대부분이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 동종의 활자가 아님을 알 수 있다.

3.2 熟練度

3.2.1 筆書體의 筆意 表現

필획의 윤곽과 필획 굵기의 균정도를 살펴보면, 모든 판본에서 필서체의 필의를 잘 살리고 있다. 동일 문자의 자양은 판본에 따라서 약간 차이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는 유사하다.

3.2.2 文字의 美感

자양은 비록 약간 차이나지만 서체의 균형을 대부분 잘 유지하고 있고, 필획은 굵고 균정하면서 고딕 풍의 강건한 힘이 넘치는 해서체의 심미감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아주 드물게 부조화스러운 문자가 보이거나, 필획이 가는 문자가 드물게 섞여 있는 경우가 있다(『古文孝經』·『職原抄』). 도각 흔적이 역력한 결과 다소 다듬지 않은 듯한 모습이 간혹 보이기도 한다(『日本書紀』·『長恨歌·琵琶行』·『職原抄』).

상하 문자의 필획이 밀착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문자를 문자면에 가득 차게 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古文孝經』).

『新雕皇朝類苑』의 경우, 자양은 다소 차이 나기도 하고 유사하기도 하지만 서체의 균형을 대부분 잘 유지하고 있고, 필획은 균정하면서 부드러운 행서체(서문)와 해서체(본문)의 세련미를 표현하고 있다. 다만 간혹 드물게 다듬지 않은 듯한 모습이 보이기는 한다. 간혹 문자의 크기도 약간 크고 먹색은 진하면서 도각술이 약간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보각 활자로 보인다.

3.3 기타

거의 例外的으로 문자의 필획이 단절된 듯한 경우가 보인다. 이는 활자 자체에

의한 현상일 수도 있고, 책지의 문제로 인하여 어느 한 판본에서만 나타난 현상일 수도 있다. 따라서 복본을 비교하면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日本)國立國會圖書館의 WA7-7과 東洋文庫의 三Aa6의 두 판본에 같은 현상이 나타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이 현상은 활자 자체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사진 6> 예외적인 문자

3.4 綜合 評價

활자 제작기술 수준이 상중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1종(『日本書紀』), 상하급은 7종(『古文孝經』·『勸學文』·『錦繡段』·『孟子』·『長恨歌·琵琶行』·『職原抄』·『新雕皇朝類苑』),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상하급이다.

4. 勅版 古活字의 組版技術

4.1 字跡의 從行과 橫列

4.1.1 從行

모든 판본에서 대체로 가지런하지만, 간혹 미세한 치우침이 보인다. 구별하기가 쉽지 않지만 치우친 정도가 약간 더한 경우는 『孟子』·『日本書紀』·『新雕皇

朝類苑」등을 들 수 있다.

4.1.2 橫列

대체로 밀집 조판하였음에도 매우 가지런하지만(『古文孝經』·『勸學文』·『長恨歌·琵琶行』), 약간의 굴곡이 자주 보이는 경우가 있다(『日本書紀』). 부분적으로 문자가 없는 행에서 약간의 굴곡이 보이거나(『錦繡段』), 미세한 자간 거리를 유지하면서 정연히 맞추고 있지만 드물게 미세한 굴곡이 보이기도 한다(『孟子』·『職原抄』).

『新雕皇朝類苑』의 경우, 자간 거리를 유지하면서 정연히 맞추고 있다. 다만 소자에서는 간혹, 중자에서는 미세한 굴곡이 보인다.

4.2 字跡의 安置 角度

약간 삐뚤어진 문자가 다소 보이긴 하지만 대체로는 정도가 경미하며, 눈에 떨 만큼 삐뚤어진 경우는 거의 없다. 굳이 세심히 관찰하면 엽 당 평균 1~2자 정도(『古文孝經』·『錦繡段』·『孟子』·『長恨歌·琵琶行』·『職原抄』), 또는 3~4자 정도이거나(『日本書紀』) 엽에 따라 빈도의 편차를 보이기도 한다(『錦繡段』). 삐뚤어진 방향은 각각인데 『勸學文』의 경우, 시계 방향이 제1葉下, 8-14“成”· 제2葉上, 4-3“讀”· 제4葉上, 1-9“勤”· 3-10“生”· 6-5“成” 등이며, 시계 반대 방향이 제2葉上, 3-11“投”· 제3葉上, 1-9“起”· 제4葉上, 2-17“學”· 제4葉下, 3-13· 14“起身”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도 정도가 심한 편은 아니나, 판본의 후반부로 갈수록 기술 수준이 약간 떨어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新雕皇朝類苑』의 경우, 서에서는 삐뚤어진 문자가 없지만, 본문에서는 삐뚤어진 문자가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눈에 띄는 경우는 4~5자 정도이다.

4.3 文字面과 印出面의 水平

4.3.1 文字面の 水平

부분 필획이 인출되지 않은 경우가 없어서 깨끗하거나(『古文孝經』·『勸學文』·『錦繡段』·『孟子』·『新雕皇朝類苑』 서), 1~2자 정도 보이지만 대부분 경미하다(『日本書紀』·『長恨歌·琵琶行』·『職原抄』). 그러나 후반부로 갈수록 인출 안 된 경우가 나타나기도 한다(『新雕皇朝類苑』 본문).

부분 필획의 목색이 연한 경우도 매우 드물게 보인다(『勸學文』, 제3葉下, 1-2 “稟”·제4葉下, 3-17“鋤”·『孟子』).

이 점에서 사방이 방정한 육면체이면서 높이도 고른 활자로 짐작할 수 있다.

4.3.2 印出面의 水平

인출면으로부터 반영된 목색을 전반적으로 조망하면, 목색의 농담이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는 고른 편이어서 목판과도 비길 만큼 균정하기도 하고(『古文孝經』·『錦繡段』·『孟子』·『日本書紀』·『職原抄』), 엮에 따라 심하지는 않지만 간혹 진한 문자가 있어서 다소 차이이기도 한다(『長恨歌·琵琶行』).

계선과 광곽 내선까지도 잘 인출되기도 하고(『古文孝經』·『錦繡段』·『長恨歌·琵琶行』·『新雕皇朝類苑』), 드물지만 일부 계선이 인출되지 않기도 하였다(『勸學文』). 광곽과 활자의 높이가 달라서 광곽의 일부가 경미하게 인출되지 않은 곳이 보이기도 한다(『日本書紀』).

『新雕皇朝類苑』의 경우, 목색의 농담이 약간 차이나는 경우가 있다. 엮에 따라서는 농담이 균일한 편도 있고 다소 연하게 차이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농담차가 큰 편은 아니다. 육면이 방정한 활자로 보인다.

4.4 印版 匡廓의 꼭지점

네 꼭지점이 조립식임에도 엄격하게 밀착되어 缺口 현상이 0mm로 없거나 (『古文孝經』·『勸學文』·『錦繡段』·『孟子』·『日本書紀』), 1~2mm 정도가 보인다(『長恨歌』·『琵琶行』·『職原抄』·『新雕皇朝類苑』). 이 경우 광곽의 접합 부분에서 미세한 높이 차이로 인한 묵색의 차이로 조립식임을 알 수 있다.

칙판은 모든 판본에서 조립식 광곽을 사용하고 있고, 식자 방법으로 조임식을 사용하고 있다. 조임 방법은 일부 판본에 잡묵 형태로 나타난 흔적을 보면 짐작이 가능하다.

『古文孝經』의 경우, 상변은 14mm 상방에, 좌우변은 11~12mm 밖에 고정한 흔적이 있다. 『孟子』는 상변은 9mm 상방에, 하변은 7mm 하방에, 좌변은 7mm 좌측에, 우변은 3mm 우측에 5mm 폭의 버팀목을 고정한 흔적이 있다. 『日本書紀』는 상변에 20mm, 좌우변에는 18~19mm 밖에 20mm 폭의 길다란 버팀목을 고정하기도 하고, 특히 우변에는 3·9~10·14~15자 위치에서 11~14mm 우측에 3~6 × 6~7mm의 켜기로 고정한 흔적이 보인다. 『職原抄』는 상변의 상방 16~18mm에, 『新雕皇朝類苑』은 10~18mm 위치에 흔적이 있다. 『錦繡段』은 좌우 광곽을 고정하기 위하여 9~12mm 정도의 광곽 밖에 버팀목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葉上 16자 위치 우측 광곽과 葉下 1자 위치 좌측 광곽의 9mm 밖에 직경 3mm의 원형 잡묵이 규칙적으로 나타나는데 고정용 나무못(췌기)으로 보인다.

이처럼 광곽을 고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버팀목의 폭이나 췌기를 박은 위치가 종류를 나눌 수 없을 만큼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인판 광곽의 형식은 비슷하지만, 이를 조이는 위치는 판본에 따라 각각이었음을 알 수 있다.

4.5 기타

4.5.1 印版 수량

『古文孝經』·『勸學文』·『錦繡段』의 경우, 모든 葉에서 판심과 광곽의 특징이 똑같이 나타나는 점에서 1장의 인판으로 간행하였다. 물론 수동식 인쇄에 의한 미세한 차이는 보인다.

『孟子』의 경우는 題辭 5엽과 본문 권1 제8엽까지는 1장의 인판을 사용하다가 제9엽부터는 다른 인판을 1장 더 추가하여 2개의 인판을 번갈아 사용하였다.

4.5.2 界線 격자

계선의 두께는 3.0~3.5mm를 사용하였고(『日本書紀』·『職原抄』), 본문 활자의 양옆에 계선과의 격리용으로 0.6mm 폭의 격자를 사용하였다(『日本書紀』).

『新雕皇朝類苑』은 2.5~3.0mm 폭의 계선을 사용하였다.

4.6 綜合 評價

조판기술 수준이 상중급에 해당하는 경우(『古文孝經』·『勸學文』·『孟子』·『日本書紀』)와 상하급에 해당하는 경우(『錦繡段』·『長恨歌·琵琶行』·『職原抄』·『新雕皇朝類苑』)가 동수로 나타났다. 이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상중급으로 간주할 수 있다.

5. 勅版 古活字의 印出技術

5.1 墨色의 濃淡

5.1.1 全體의 墨色

전체적으로 묵색을 진하게 사용하여 연한 엽의 유무에 따라서 농담차가 좌우되었다. 모든 판본에서 대체로 다소 연한 엽이 있으나, 정도 차이는 크지 않은 편이다. 『新雕皇朝類苑』의 경우는 후반부로 갈수록 다소 진한 엽이 있어서 농담차가 약간 커지는 경향이 있다.

5.1.2 葉 간의 濃淡差

간혹 연한 엽이 2~3엽 정도 섞여 있어서 엽에 따라 농담 차이가 약간 나타나기도 하고(『古文孝經』·『勸學文』·『長恨歌·琵琶行』), 약간 더 진한 엽이 보이기도 한다(『日本書紀』·『職原抄』). 『長恨歌·琵琶行』은 묵색이 전반적으로 진한데 『長恨歌』 제5엽과 『琵琶行』 제2엽은 다소 연한 편이다. 『新雕皇朝類苑』은 다소 진하거나 연한 엽이 공존하고 있다.

5.2 墨汁의 번짐과 字跡의 깨짐

5.2.1 墨汁의 번짐

번진 문자가 없는 경우도 있고(『古文孝經』·『勸學文』·『孟子』·『日本書紀』), 측면이 다소 반영되어 간혹 부분 번짐이 보이지만, 정도와 수량은 심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錦繡段』·『職原抄』). 『長恨歌·琵琶行』의 경우는 『長恨歌』 제1·3·4·6·7·9엽과 『琵琶行』 제3엽에서 약간의 부분 번짐이 보인다. 『新雕

『皇朝類苑』은 미세한 부분 번짐이 보이나, 정도와 수량이 경미하다.

전체적으로 묵색을 진하게 사용하면서 힘껏 인출하여 번짐 현상을 볼 수 있지만, 정도가 경미하여 墨丁이 된 문자가 없을 만큼 우수하다.

5.2.2 墨汁의 쓸림

묵색을 진하게 사용했으면서도 쓸림 현상이 없는 경우가 있다(『古文孝經』·『日本書紀』). 착묵 상태가 약간 균일하지 못하고 묵즙이 흘러있는 불안정한 모습이 드물게 보이기도 한다(『勸學文』 제2엽하의 하반부·『長恨歌·琵琶行』·『職原抄』·『新雕皇朝類苑』).

5.2.3 字跡의 깨짐

모든 판본에서 착묵에 큰 어려움이 없는 목활자에 묵색을 진하게 쓴 결과 자적이 깨진 경우는 없다.

5.3 雜痕과 雜墨

대부분의 판본이 묵색을 진하게 사용하였으면서도, 잡흔과 잡묵이 없기도 하고(『勸學文』), 정도와 수량이 적거나(『古文孝經』·『錦繡段』·『孟子』·『長恨歌·琵琶行』·『新雕皇朝類苑』) 대소량이 간혹 드물게 보이는 경우가 있다(『日本書紀』·『職原抄』).

5.4 二重 印出

대부분의 판본이 없다. 예외적으로 『日本書紀』에서 이중 흔적이 보인다.

5.5 印出의 方向과 强度

5.5.1 印出의 方向

책지의 후면을 살펴야 관찰이 가능한데, 분석을 할 수 없었다.

5.5.2 印出의 强度

인출면을 육안으로 관찰하면, 전반적으로 강하게 인출하여 문자 필획의 윤곽이 선명하게 반영되고 있는데, 측면이 약간 반영되면서 필획이 굵고 진하거나 번진 듯한 문자가 간혹 보이기도 하고(『錦繡段』·『新雕皇朝類苑』), 문자 필획의 측면이 반영되어 다소 굵고 진한 경우가 드물게 보이나 정도는 심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孟子』·『日本書紀』·『長恨歌·琵琶行』·『新雕皇朝類苑』). 특히 소자에서 경중으로 측면이 반영된 현상이 보이는 경우도 있다(『職原抄』).

5.6 着墨의 均整度

전반적으로 묵색은 진하지만, 착묵 상태가 매우 균정하여 판면이 매끄럽게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古文孝經』·『勸學文』·『孟子』·『日本書紀』). 그러나 세심히 관찰하면 다소 부족한 부분이 간혹 있으나 이 경우도 거의 예외일 만큼 경미하다(『日本書紀』).

이에 비하여 착묵 상태가 이상적이지 못하고 약간의 농담 차이와 함께 불완전한 곳이 간혹 보이기도 하고(『錦繡段』·『職原抄』), 대형 활자의 자면 필획에 먹 입자가 고르게 퍼지지 못한 현상이 자주 보이기도 한다(『職原抄』). 착묵 상태가 균정하지 못하고 진하거나 연한 엽이 혼재하고 있어서 판면이 다소 안정되지 못하여 조각술과 조판술을 상쇄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長恨歌·琵琶行』).

『新雕皇朝類苑』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묵색은 진하지만, 착묵 상태가 매우 균

정하여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간혹 쓸림과 측면 반영으로 진한 경우가 있어서 균일한 엽과 그렇지 못한 엽이 공존하고 있다. 심한 정도는 아니다. 목판과 비길만하다.

5.7 綜合 評價

전반적으로 목즙을 사용하는 인출기술이 우수하여 상중급이 4종(『古文孝經』·『勸學文』·『孟子』·『日本書紀』), 상하급이 3종(『錦繡段』·『職員抄』·『新雕皇朝類苑』), 중상급이 1종(『長恨歌』·『琵琶行』)씩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상중급이다.

6. 勅版 古活字의 印刷技術

앞에서 분석한 내용을 종합하면 각각의 판본에 따라 인쇄기술 수준의 편차가 크지 않고 비슷하다. 이는 동일한 장인이 동일한 활자를 이용하여 인쇄한 결과로 추론된다.

기술 수준은 상중급이 4종(『古文孝經』·『勸學文』·『孟子』·『日本書紀』), 상하급이 3종(『錦繡段』·『職原抄』·『新雕皇朝類苑』), 중상급이 1종(『長恨歌』·『琵琶行』)이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칩판의 활자 인쇄 기술 수준은 상중급으로 평가할 수 있다.

7. 結 論

이상 분석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勅版에는 1593년의 文祿 칩판 1종, 1597-1603년의 慶長 칩판 10종, 1621년

의 元和직판 1종이 있다. 이 중 慶長직판 8종과 元和직판 1종이 현존하고 있다. 판식 상의 특징은 대체로 四周雙邊 또는 單邊, 有界 또는 無界, 8行17字(慶長)와 13行20字(元和), 小註雙行 또는 單行, 大黑口, 上下內向・中上向3黑魚尾(慶長)와 上下內向雙黑魚尾(元和), 一切式 版心 등을 주로 사용하였다.

(2) 活字의 재질은 자양이 일치하지 않고 도각의 흔적과 목리가 있어서 목활자임을 알 수 있다. 製作技術은 필서체의 필의를 표현하면서, 문자의 미감을 충분히 살린 세련된 수준이다. 기술 수준은 상하급.

(3) 組版技術은 字跡의 行列이 대체로 가지런한 편이며, 빼뚫어진 문자는 약간 나타나고 있고, 墨色 濃淡은 다소 연한 엽이 보이지만 정도차가 크지 않다. 기술 수준은 상중급.

(4) 印出技術은 전체적으로 목색을 진하게 사용하면서도 농담 차이가 크지 않고, 墨汁의 번짐과 잡묵 그리고 이중 인출 등이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균정한 수준이다. 기술 수준은 상중급.

(5) 각 판본의 인쇄기술 수준이 비슷하여 동일한 장인이 동일한 활자로 인쇄한 결과로 추론된다. 印刷技術 수준을 종합하면 상중급에 해당한다.

<참고문헌>

1. 목록·해제·도록류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編,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和漢圖書目錄』, 京都: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1973.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編,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漢籍目錄』, 京都: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1979.

慶應義塾大學圖書館, 『慶應義塾圖書館藏和漢書善本解題』, 東京: 汲古書院.

慶應義塾大學圖書館附屬研究所斯道文庫編, 『慶應義塾大學圖書館附屬研究所斯道文庫貴重書蒐選圖錄解題』, 東京: 汲古書院, 1997.

(日本)國立國會圖書館圖書部編,『國立國會圖書館所藏古活字版圖錄』,東京:汲古書院,1990.

(日本)國立國會圖書館圖書部編,『國立國會圖書館漢籍目錄』,東京:國立國會圖書館,1987.

宮內廳書陵部編刊,『(書陵部)和漢圖書分類目錄(上・下・增加)』,東京:宮內廳書陵部,1952・1953・1968.

內閣文庫編,『內閣文庫國書分類目錄』,東京:國立公文書館內閣文庫,1974.

內閣文庫編,『內閣文庫漢籍分類目錄』,東京:國立公文書館內閣文庫,1971.

大東急紀念文庫編修,『大東急紀念文庫貴重書解題』,東京:大東急紀念文庫.

大東急紀念文庫編修,『大東急紀念文庫書目』,東京:大東急紀念文庫,1955.

大東急紀念文庫編修,『大東急紀念文庫書目第二』,東京:大東急紀念文庫,1978.

東京大學東洋文化研究所編,『東京大學東洋文化研究所漢籍分類目錄』,東京:東京大學東洋文化研究所,1973.

東洋文庫編,『東洋文庫所藏漢籍分類目錄:經部(東洋文庫之部)』,東京:東洋文庫,1978.

東洋文庫日本研究委員會編,『岩崎文庫貴重書書誌解題』,東京:東洋文庫,2000.

東洋文庫編,『岩崎文庫和漢書目錄』,東京:東洋文庫,1934.

反町茂雄編,『弘文莊古版本目錄』,東京:弘文莊,1974.

反町茂雄編,『弘文莊古活字版目錄』,東京:弘文莊,1972.

反町茂雄編,『弘文莊善本目錄』,東京:弘文莊,1977.

中華民國國立中央圖書館編,『中華民國國立中央圖書館善本書目(增訂本)』,臺北:中華民國國立中央圖書館,1967.

中華民國國立中央圖書館編,『中華民國國立中央圖書館善本書目(增訂二版)』,臺北:中華民國國立中央圖書館,1986.

天理圖書館編,『古活字本目錄:附年間主要增加和漢書目』,天理:天理大學出版部,1961.

天理大學附屬圖書館編,『天理圖書館稀書目錄和漢書之部第一・二・三・四』,

天理: 天理大學出版部, 1940・1951・1960・1998.

杏雨書屋編. “杏雨書屋所藏古活字本目錄.” 『杏雨』 第4號(2003).

2. 저술·논문류

屈萬里. “中文舊籍目錄板本項著錄舉例.” 『大陸雜誌』 第4卷 第6期(1952. 3), 16-18.

『橘窓自語』.

『羅山文集』.

『道春年譜』.

三寶院. 『義演准后日記』.

森上修. “近世初頭の古活字版印刷.” 『杏雨』 제4호(2001. 4).

西洞院時慶. 『時慶卿記』.

船橋國賢. “(日本書紀)跋文.” 『日本書紀』, 慶長4年勅版本活字本.

小槻孝亮. 『宿禰記』.

『御湯殿上日記』.

『言繼卿記』.

『元和年錄』.

『壬生家四卷之日記』.

『資勝卿記』.

曹炯鎮. “古活字 印刷技術의 評價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第25輯(2003. 6), 369-406.

曹炯鎮. “日本 叡山版 古活字의 印刷技術 研究.” 『書誌學研究』 第53輯(2012. 12), 85-110.

曹炯鎮. “日本の 駿河版은 朝鮮의 活字인가?” 『書誌學研究』 第26輯(2003. 12), 1-23.

曹炯鎮. “日本 駿河版 銅活字의 製作過程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第24輯(2002. 12), 89-129.

書誌學研究 第54輯(2013. 6)

舟橋秀賢. 「慶長日件錄」.

「中臣稔」. 慶安年間翻刻本.

昌彼得. “<中文舊籍目錄板本項著錄舉例> 補訂.” 「大陸雜誌」第4卷 第11期
(1952. 6), 5.

川瀬一馬. 「日本書誌學用語事典」. 東京: 雄松堂, 1985.

川瀬一馬. 「増補古活字版の研究」. 東京: 共立社, 1967.

土御門泰重. 「日時勘文留」. 자필본.

「土御門泰重記」.

「壺簪錄」.